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10월 2일(주일) 제1411호

“다시, 선교에 목숨 걸겠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의 초석이 된 당시 한남동기도모임.

“한계없는 선교, 함께하는 후원”

10월 22~23일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CGNTV가 오는 10월 22일(토)과 23일(일) ‘한계 없는 선교, 함께하는 후원’을 주제로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한다. 정기후원 약정행사와 더불어 CGNTV의 계속되는 도전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이 선교지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특집 다큐멘터리도 제작한다.

특집 다큐멘터리는 CGNTV가 도전을 멈추지 않고 복음 방송을 이어가면서 선교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특집다큐멘터리에서는 CGNTV 해외 지사가 써내려 가고 있는 미디어선교의 역사와 은혜를 전한다. 이외에도 CGNTV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4만여 명의 CGNTV 후원자들의 이야기도 소개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10월 4~5일 미래선교전략 콘퍼런스, 양재 기쁨홀

10월 5일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10월 4일(화, 9시 30분~17시 30분), 10월 5일(수, 10시~12시 15분)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미래선교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미래선교전략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선교환경과 변화,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30년 평가, 다음 30년을 위한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10월 5일(수, 19시 30분)에는 ‘두란노해외선교회 30주년 감사예배’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드린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30주년 감사예배는 감사패 수여,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한충희 본부장의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미래비전 선언문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선교전략 콘퍼런스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 30주년 감사예배에는 온누리교회 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온누리교회의 전방개혁을 위해 창립된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지난 30년 동안 공산권, 이슬람, 힌두권 등 선교가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현재까지 두란노해외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누적 1,450명이 50여 개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했다.

한충희 목사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시, 선교에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를 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어질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선교 행진에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40 days for life)

11월 6일까지 오전 9시~오후 9시
명동대성당 들머리 앞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40 days for life)’가 지난 9월 28일(수)부터 11월 6일(주일)까지 명동대성당 들머리 앞에서 이어진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낙태 종식을 위한 국제적 기도운동이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온누리교회도 동참한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기도 봉사를 온누리교회가 담당한다. 기도 봉사자는 생명의 존엄성과 낙태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팻말)을 들고, 일 자별 기도문을 낭독하며, 평화적으로 시위한다. 기도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윤화 목사(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 공동대표)는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모든 잉태된 아기들이 태어나 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생명이 소중히 여김 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313

당 회

일시 : 2022년 10월 8일(토) 오전 6시
장소 :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대상 : 전임교역자, 시무, 사역, 명예, 협동장로
*안건: 2023년 장로선출안

사르밧 프로젝트 2억 5백만원 현금

1,256명에게 쌀 배송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에 2억 5백만 원을 현금하고, 대상자 1,256명(개인+기관)을 선정했다(9월 28일 기준).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들에게는 10월 말부터 ‘감사의 쌀’ 이자택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부 본부장)는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나누는 사르밧 프로젝트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사랑이 풍성한 교인,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문의: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창립기념 새벽부흥집회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오전 5시 30분 모든 캠퍼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및 CGNTV 생중계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10월 1~2일은 온누리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이다. 온누리교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아 새벽부흥집회를 개최한다. 10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를 주제로 오전 5시 30분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여호수아서 본문으로 설교한다.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수요일과 목요일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한다.

온누리교회 창립 37주년 창립기념 새벽부흥

집회 실황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오전 5시 30분)과 CGNTV(오전 6시)에서 생중계된다.

창립기념 새벽부흥집회에서는 요일별 중보기도를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 화요일 ‘차세대와 대학청년’, 수요일 ‘선교’, 목요일 ‘교회’, 금요일 ‘가정’에 대해 중보기도한다.

특순도 다채롭다. 월요일 주찬양찬양사역팀, 화요일 주사랑찬양사역팀, 수요일 주기쁨찬양사역팀, 목요일 대형 연합, 금요일 주영광찬양사역팀이 특순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맛있는 말씀 해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 20:8)

하나님은 인간들이 일만 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쉬면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다. 이것은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노비들과 모든 짐승들까지도 쉬도록 명령하셨다. 그만큼 인간의 안식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수고하면서 일해야 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안식일의 쉼을 누릴 자격이 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창조 리듬에 맞춰 사는 자는 균형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묵숨 걸고 지켰다.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금지사항을 정해 놓고 지키려 했다(미쉬나 7:2). 그 행동강령 중에는 안식일에 두 글자 이상을 쓰거나 두 글자 이상을 지우면 안 된다거나 안식일에 불을 켜거나 꺼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일이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일 등을 삼가하고 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발각되면 돌로 처형 해버릴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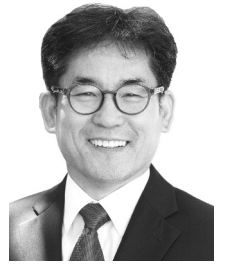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서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시비를 걸어왔던 문제가 안식일 계명이었다.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안식일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

지 않기 때문이요, 두 번째 이유는 노는 것을 안식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쉬는 날에 무리하게 노느라 쉼이 필요하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안식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 번째 이유는 안식일 계명을 구약의 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사실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성도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설교

를 예배해야 한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둘째, 안식일은 섬김의 날이기도 한다.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런데 심신이 지쳐버리도록 과도하게 섬기는 것은 삼가야 한다.

셋째, 안식일인 토요일이나 주일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안 되면 일주일 중에서 하루, 하루가 안 되면 반나절만이라도 쉼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자신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활동을 하면 좋다. 노는 것은 노는 것으로 끝나지만, 안식은 묵상을 포함한다. 쉼의 활동에서 영적인 의미를 한 가지씩 느끼고, 그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한다면 진정한 안식을 갖는 것이다. 매주 안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쉼의 활동에서 영적인 의미를
한 가지씩 느끼고, 그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한다면
진정한 안식을 갖는 것이다.”

나치게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안식일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고 말았다. 이와 같은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도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많

를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구약 성경도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 부연 설명이 가장 길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성경적 의미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첫째,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다. 몸과 마음을 다해 창조주 하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단련의 과정을 지나 화해의 관문으로!

10월 3일~9일
창세기 30:25~32:20



묵상포인트 1: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신다(히 12:6~8). 하나님은 죄 많은 야곱을 하나님 언약을 이어받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으신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그

를 단련하시고, 그 과정에 함께하시며 복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지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 술수와 탐심이 가득한 라반 곁에서는 결코 자기 집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가지 못하게 붙드는 라반에게 야곱은 독특한 제안을 한다.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얼룩진(아롱진) 것, 검은 것이 태어나면 자기 소유로 삼겠다는 것이다. 야곱에게 매우 불리한 제안이다. 야곱은 나뭇가지 꺾질을 벗겨 양들이 새끼를 뱉 때 세워 두었는데, 새끼들이 모두 점과 무늬 있는 것이 태어났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위임에도 야곱의 원대로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역사다. 야곱의 재산이 늘자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라반의 속임과 술수를 이야기하며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아내들은 주저 없이 야곱을 따라나선다.

묵상포인트 2: 라반에게 야곱이란 존재는 재산 목록 1호와도 같았다. 그런 야곱이 보고도 없이 떠나자 라반이 그를 추격한다. 하지만 라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야곱을 결코 해칠 수 없다.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자.

▶야곱이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이 7일 길을 쫓아간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명하신다. 이에 라반은 야곱을 만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만 책망한다. 드라빔은 고대 사람들이 가신(household gods)으로 숭배하던 사람 모양의 우상이다.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한다. 야곱은 자신의 결백과 라반의 부당함, 그리고 20년 동안 자신이 보인 성실함과 충성됨을 변증한다. 라반은 야비하게도 20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야곱은 자신보다 더한 라반 아래서 인내하며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라반과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평화의 언약을 맺는데, 이 돌기둥은 라반과 야곱의 영토를 구분 짓는 경계가 된다.

묵상포인트 3: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는 형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얻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많은 예물을 준비한다. 화해를 위해 야곱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묵상하자.

▶야곱은 두려워한다. 20년 전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곱이 많은 가족을 에서에게 먼저 보냈는데, 에서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한 심경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한다. 야곱은 또다시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많이 준비한다. 이번에는 선물을 몇 차례 나눠 전달해서 에서의 화를 조금씩 누그러뜨리려는 일종의 심리적 전략을 계획한다.

적응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야곱을 성숙한 사람으로 단련하셨다. 나의 신앙과 인격을 단련하는 이는 누구인가? 모든 단련 과정을 마치고, “정직하고 진실했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 진실하게 순종하자. ▶야곱은 라반 아래서 20년 동안 단련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났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떠나야 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하자. ▶내가 화해를 위해 손 내밀어야 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와 화해하기 위해 물질적으로 내가 준비할 최선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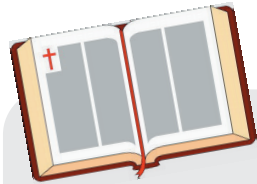
도현이를 위해서!

희귀 소아암 신경모세포종 4기를 진단받아 투병 중인 도현이를 위해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기도 부탁 드릴 때 병원에서 도현이를 볼 수 있는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도현이가 많이 회복되었어요. 이모(도현이 엄마)가 성도님들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셔서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도현이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회복하고 있대요. “고난 없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것은 어렵다”고 고백도 했다고 해요. 지금은 주일예배도 나가고, 가정예배도 매일 드리고, 학교도 가고 있대요. 도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모가 도현이와 가정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도현이가 많이 회복했지만, 오른쪽 폐 반 이상에 물이 찼다고 해요. 폐에 찬 물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다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 도현이를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지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도현이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처음 교회에 나가셨다고 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이준희 학생(양재온누리교회 꿈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교회가 감사를 절기로 지키기로 한 것은 영적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태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감사 생활을 새롭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는 기록들이 복음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개정번역을 비롯한 여러 번역서가 ‘감사’를 ‘축사’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분명히 ‘감사하다’라는 단어인데 왜 이것을 ‘축사’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말성경에서 ‘감사’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이고, 또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묵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사건에서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 전에 감사

첫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요 6:11).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감사하셨고,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이백 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오병이어로는 오전 명을 먹이기에 너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축사하신 후’라고 번역하니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축사하신 것으로 해석하는데, ‘감사’로 번역하면 결핍된 상황 자체에서 감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결핍의 상태에서 드러진 감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후 풍족한 상태에서 드러진 감사가 아닙니다. 기적 이전에 부족함과 결핍의 상태에서, 수천 명을 먹이기에 너무 부족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풍성해

졌을 때 드리는 감사는 늦은 감사입니다. 결핍할 때, 이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상황과 자원을 비교해서 위축되거나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것으로 누구를 먹일 것인가? 한 소년의 음식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라며 상황과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비교했지만, 예수님은 상황과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적은 가능성이 하나님께 두려웠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지를 바라보며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돌려질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왕으로 삼고자’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그들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군중들이 찾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배부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배부름을 추구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결핍과 부족함과 굶주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가지고 나갈 때도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결핍과 부족함의 상태에 있다면 바로 그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는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꾸는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존 클레릭이라는 미국 LA주의 대법원 판사가 2007년 변호사로 일할 때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고 합니다. 깊은 계곡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문득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알기 전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

누구의 음성인지는 모릅니다. 아마 성령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감사편지를 한 장씩 쓸 때마다 1달러를 더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변호사로 일하면서 받았던 여러 편지에 감사편지를 쓰고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감사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마가복음 14:22~25

“풍족함이 아니라 결핍함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순종으로 감사하십시오.”

전혀 감사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에게도 감사 거리를 찾아서 썼습니다. 사무실 청소를 도와줬던 분을 비롯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에게 감사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지금 상황이 불행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결핍된 상황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현재 상태가 불행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소중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난 이후 자신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가 변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기적을 경험했고, 그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 주변이 변화되고, 결국 모든 상황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결핍과 부족한 상태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부족한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

둘째,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요 11:41).

‘돌을 옮겨 놓은 것’은 이제 나사로를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입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여전히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 무덤은 원수의 무덤이 아닙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 남매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제자공동체의 일원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이 가정에 머무르고, 이 가정의 공로를 받으셨고, 제자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도 깊은 슬픔을 주었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드러진 감사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절망의 상황을 직면하는 태도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감사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드러진 감사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한참 열매 맺으며 사역하는 동안 어려운 기후와 환경에서 8살 큰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장사지낸 뒤 남은 세 아들과

어린 딸의 건강 또한 어렵다는 것을 알고 급히 영국으로 보내려고 배를 탔습니다. 상하이로 가는 여정에서 5살 된 막내아들이 점점 아프더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쯔강 인근 공동묘지에 막내아들을 묻고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허드슨 테일러가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아이들과 중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두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근심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저의 눈물이 그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저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일부를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뛰어든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두 자녀를 선교지에서 질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절망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두 자녀와 이별한 슬픔이 중국 선교를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아내가 새 생명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영양 결핍으로 출생하는 아이와 함께 3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테일러 부인이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때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테일러 부인은 주님의 영원한 팔에 안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테일러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주님의 팔에 의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2년 반 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데려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기로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장면을 관찰한 분의 기록입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아내를 떠나 보낸 이후 동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맞이한 슬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아내를 슬픔과 고통 없이 데려가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눈물은 슬픔이기보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의 모든 언어는 감사로 끝이 납니다. 아내의 죽음과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13편에 계속〉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부부갈등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한은경 권사
(두란노 어머니학교 이사장)

부부갈등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일까? 보통 그 부부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부갈등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자녀들이다. 우리 부부도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가정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갈등을 겪었다. 반복되는 갈등으로 내가 힘들어서 자녀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갈등이 수습될 무렵 아들이 “어머니 그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당연히 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들이 “저였어요”라고 답했다. 큰아들은 살기 싫어서 옥상에 올라갔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부부에게 갈등이 생기면 가정이 어려워진다. 아이들에게 가정은 모든 세계인데, 그 세계에 지진이 나는 것과 같다. 부부가 갈등을 겪을 때 자녀들은 큰 불안을 느낀다.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한다. 자신이 서있는 땅이 흔들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다. 부부가 갈등을 겪으면 자녀들은 가정에서 설 땅이 없어지는 것이다. 자녀들은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반항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한다. 몇 년 전 이슈였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아들 준영이도 부모의 갈등을 보면서 불안을 느낀다.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물질적으로 풍족한데도 작은 물건들을 훔치는 행동을 한다. 도둑질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며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좋은 것을 주면 아이들이 흡족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좋은 것보다 필요한 것이 안정감이다. 안정적인 부모의 관계와 감정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부부 안에 갈등이 생기면 부정적인 감정, 불안한 감정이 곧

바로 자녀들에게 전달된다. 부모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둘도 없는 가장 큰 선물이다.

부부의 갈등은 어린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다 큰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다. 부부갈등은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언젠가 내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갈등을 겪고도 가정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자신의 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경험시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의 안정이 자신의 아내에게도 땀땀할 수 있는 이유라고 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한 기업을 세우는 일이다. 부모의 양육은 자녀를 키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내 자녀가 자녀를 키우는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 자녀가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봐야 나의 자녀 양육이 긍정적이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다.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을 안 겪을 수는 없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중요하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선 자녀들에게 과격한 부부 갈등의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큰 소리를 내고 싸우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외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그 다음 자녀들에게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 갈등은 사람이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갈등을 풀기 위해 대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는 점이다. 부모가 잘 지내는 것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다르다.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 엄마아빠는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이구나’를 느끼면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불안을 느끼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한다.

차세대들의 간증

“찬양팀을 섬기는 게 정말 즐겁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성가대를 했다. 그때 성가대는 찬양만 했는데, 찬양팀은 위십까지 하는 것이 부러웠다. 그래서 나도 찬양팀을 하고 싶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찬양팀을 섬길 기회가 없었다.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올해 찬양팀이 다시 생겼다. 찬양팀을 정말 하고 싶던 나에게 기회의 문이 열렸다. 찬양팀을 섬기게 되어서 정말 기뻐했다.

찬양팀을 섬기면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교회에 가서 연습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매주 교회를 안 나가고 온라인(Zoom)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내심 좋았는데 부모님과 함께 다시 교회에 가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귀찮았다. 하지만 찬양팀을 섬기면서 일찍 일어나는 일이 즐거워졌다. 엄마가 일어나라고 하면 벌써 일어나 준비를 끝내고 기다렸더니 엄마가 많이 놀라셨다.

처음에는 외워야 하는 위십의 양이 적어서 별로 힘들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외워야 하는 위십의 양이 늘었다. 그 많은 것을 주말에 몰아서 외웠더니 너무 힘들었다. 위십을 다 못 외운 날에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고, 괜히 찬양팀을 했나보다 생각한 적도 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응원해줘서 버틸 수 있었다. 요즘은 미리 연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위십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놀려서 많이 속상할 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답을 찾아보는 중이다. 그래도 담임선

생님께서 친구들 앞에서 칭찬해주셔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 부모님이 다윗 왕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춤을 추었다고 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부모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온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지난 여름캠프 기간이 부모님의 여름휴가와 겹쳐서 하루만 부모님과 보내고, 그 다음날 캠프에 참가했다. 부모님이 아쉬워하셨는데 솔직히 나는 친구들과 함께할 생각에 좋았다. 하지만 캠프에서도 이어진 찬양팀 연습이 생각보다 많았다. 특히 저녁집회를 위한 찬양팀 연습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위십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잘 견딜 수 있었다. 저녁집회에서 목사님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내가 찬양팀을 캠프 때까지는 잘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견디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셨다. 그래도 나는 찬양팀을 섬기는 게 정말 즐겁다.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고시안 학생
(서빙고온누리교회
꿈땅, 초등5학년)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9월 29일
본문(창 29:25~30)



윌리엄 다이스(William Dyce, 1806~1864)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야곱.'

1) 야곱이 사랑한 라반의 작은딸 이름은 무엇인가요?

2) 야곱이 라반의 작은딸과 결혼하기 위해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일했나요?

3)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큰딸을 야곱에게 시집보냈어요. 라반의 큰딸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글:그림 명난희

30.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섯으로... 창 30:24



두란노
해외선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 러시아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친애하는 온누리교회 형제자매님에게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25여 년 전 제가 있는 모스크바에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소속 사랑하는 김낙운 목사님과 추길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모스크바에 온 첫 번째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2005년에는 이준 목사님과 김창규 목사님이 모스크바에 오셨습니다.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기도와 성원 덕분에 그때부터 선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Living Life 교회가 세워졌고, 2010년에는 Living Life 출판사도 설립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 시골이나 무슬림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전역과 CIS 국가에서 ‘Living Life QT’와 ‘일대일제자양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QT와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하나의 믿음,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단결하면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사랑과 성원을 기억합니다.



마리나 쿤티스카야
(러시아《생명의 삶》편집자)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스크바 체홉시에 있는 지바야지즈니교회를 섬기고 있는 맥심입니다. 지바야지즈니교회 형제자매들과 복음 전파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역의 동역자들과 함께 지

바야지즈니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여성사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한 자매가 모국어인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복음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쌓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섬길 형제

자매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의 믿음과 형편에 따라 재정을 모아 예배를 위한 장소를 임대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맥심 선교사
(지바야지즈니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온누리교회 형제자매님과 두란노해외선교회(TIM) 가족들께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발레리, 김안나 선교사입니다.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영적, 물질적 후원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그분의 임재, 강력한 지원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됩

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형제자매에게도 선한 영향을 줍니다. 그 덕분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

정과 사역,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발레리 전도사
(지바야지즈니교회)

◎ 이라크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에르빌 지역의 많은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돈에 대한 사랑에 정신이 팔려 구원을 원하지 않기 때

문입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워싱턴을 섬기면서 다음세대에 계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다음세대 공동체가 세워지고 운영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0대들이 자신들의 마음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이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저희 교회가 규모가 커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덕분에입니다. 선교지 교회들이 스스로 사

역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선교사들을 파송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동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사르 선교사
(CMA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덕분에입니다”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큰 힘입니다”

이라크 에르빌에서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교회를 섬기는 말라드 목사입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저희 교회는 바사르 선교사가 2010년 에르빌로 이주하면서 그의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성도 35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

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라크에도 전통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도에 힘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슬람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진 종교적 신념을 바꾸고, 자신들의 신앙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교리로 는 무슬림들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

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도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심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낸다면 무슬림도 바꿀 수 있다고 도전하고, 실제 그 모습을 보여주 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무슬림 사회가 변화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두란노해외선교회(T

IM)의 다양한 사역과 경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라드 목사
(CMA교회)

“모든 쿠르드족이 주님을 알 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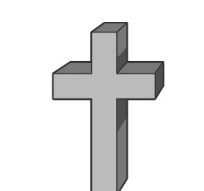
쿠르드족을 섬기고 있는 에밀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집트 남쪽 마을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카이로로 이사했습니다. KDEC라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작은 그룹에 참여했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쿠르드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쿠르드인들

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이라크, 이란, 시리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사는 지역을 ‘쿠르디스탄’이라고도 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쿠르드족 인구는 약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도 속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그들이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혼탁해지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족이 더 많이 흩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쿠르드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쿠르드족을 섬겨

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쿠르드족이 주님을 알 때까지 함께 달려가자고 부탁드립니다.



에밀 선교사
(쿠르드족 선교사)

죽음보다 생명이 존귀(尊貴)하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인가?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명이비인
후과 원장, 의료윤리연
구회 회장)

최근 대한민국에서 안락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난 6월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 법안이 있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하자는 법안이다. ‘조력존엄사’라고 미화했지만 이미 일부 나라에서 시행하는 안락사인 ‘의사조력자살’이다.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수단으로 죽음을 사용하겠다는 안락사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안락사의 정의와 구분, 문제점

안락사(安樂死)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크게 구분하면 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자의적, 비(非)자의적 안락사로 구분한다. 또 외부 행위에 따라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로 나눈다. 의사가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적극적 안락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면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환자의 뜻에 반하는 비자의적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 행위이므로 이 글에서 논의할 의미가 없다. 자의적 안락사가 논의의 대상이다.

임종기 환자가 아닌 식물인간(지속식물상태)이나 중증 치매 환자가 사전에 의사를 밝혔을 경우,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인공영양 및 수분공급을 중단해 사망하게 하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영국, 독일, 대만이 허용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는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의 부류로써 적극적 안락사다. 의사가 처방한 독극물을 환자 본인이 투약하면 의사조력자살, 의사가 직접 투약하면 안락사라고 부를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 주의할 점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은 소극적 안락사가 아니다. 환자의 사전 지시를 따라 자연사(自然死)를 맞이하는 것이다. 연명치료 중단은 무의미한 의료집착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줄여 자연사할 때까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는 무의미한 삶이라고 느끼는 사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 반대 행위다.

안락사는 일단 도입되면 돌이킬 수 없기에 쉽게 제정하면 안 된다. 어느 나라나 안락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일단 안락사가 허용되고 나면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 2001년부터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네덜란드가 그 대표적인 예다.

네덜란드는 2018년 말기 환자가 아닌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허락했고, 2020년에는 중증 치매 환자에게도 그 범위를 확대했다. 본인이 희망했다고 보기 어려운 신생아부터 12세 미만 불치병 어린이에게까지 안락사를 허용했다. 아무리 엄격하게 시작했어도 안락사를 한번 허용하면 점차 더 많은 사람을 안락사 대상으로 삼게 된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실례가 되었다.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의 설문 조사는 국민에게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냈다. 그 이유는 긍정적인 답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 질문이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는 입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다. ‘존엄한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에 언제나 부합한다. 만일 “당신이나 가족이 말기 환자가 되었을 때 통증이 심하면 자살을 고려하겠는가?”라고 물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안락사를 논하면서 ‘존엄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존엄사는 개념이 통일되지 않아서 사람마다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었을 때 여러 언론이 존엄사법이 시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연명치료 없이 자연사하는 것이 존엄하다는 의미였다. 반면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1997년 미국 오리건주의 안락사 법안 이름인 ‘Death with Dignity Act’를 그대로 존엄(dignity)이라 해석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존엄사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라고만 정의함으로써 연명치료 중단이나 안락사와 구별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을 존엄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므로 공식적 용어로 사용하면 안 된다.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안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이다. 말기 환자에게만 국한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허용한다. 둘째, 말기가 아닌 환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2000년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대만은 9년 만에 환자자주권리법(病人自主權利法)을 시행하며 그 대상의 범위를 비가역적 혼수상태나 지속식물상태, 중증 치매로 확대했다. 셋째,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의 범제화다.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에게까지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2021년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2003년에는 벨기에가, 2016년에는 캐나다가 이를 허용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고, 현재 15개 주가 안락사 허용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17년 빅토리아 주에서, 포르투갈에서는 2020년에, 스페인에서는 2021년에, 콜롬비아에서는 2022년에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급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고 있다.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이미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법을 통과한 나라에서 일반인의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되었다. OECD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에서 의사조력자살의 입법은 자살을 조장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의사협회는 의사조력자살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만일 법안이 마련된다면 의대생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것은 선행(善行)이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의대에서 죽이는 법을 익히고, 이 정도면 안락사의 적응증(indication)이 된다고 배운 의사는 지금의 의사들보다 생명을 쉽게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의사들은 인터뷰에서 “처음 하

는 안락사가 어렵지, 점차 죄책감 없이 시행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결국, 안락사 법안은 환자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선한 명제로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위험한 법이다.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안락사를 택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초고령화 시대에는 더 그럴 것이다. ‘간병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독박 간병’,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특히 호스피스 돌봄(care)에 합당한 의료수가를 책정해 죽기 직전 연명치료를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돈과 고통을 줄이고, 그 비용을 영적·심리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에 사용한다면 국민의 죽음은 한결 존귀해질 것이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죽음은 극복하고 싸우는 대상이 아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일부다. 이 가치를 가지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절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전부다. 내 뜻대로 주어지지 않은 생명을 내 마음대로 종결하겠다는 자의적 안락사는 자살과 마찬가지로 자기결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다. 자살과 같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는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고통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놓지 말아야 할 전제는 ‘죽음보다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이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죽는 것이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자기결정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쉽게 밀려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아무리 식물인간, 중증 치매 상태여서 대화가 안 돼도 영혼은 살아서 듣고 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약속대로 천국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성도들에게 맡겨진 영적 돌봄이다. 세상이 보기에는 차라리 안락사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육신도 그 영혼을 거두시지 않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의 영혼은 아직 이 땅에 사명이 남았기에 남겨두셨을 것이고, 불신자들의 영혼은 복음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 주고 계실 것이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죽음의 시간을 하나님 결정에 맡기는 것이다.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살아내고, 생명을 지켜주며, 불신자의 영혼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누리는 것이다.

이주민 공감하고, 섬기는 차세대

Point5공동체 차세대 'J Vine(Jesus Vine)'

여기, 그 누구보다 이주민의 마음과 아픔을 이해하는 차세대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Point5공동체 'J Vine(Jesus Vine; 예수님의 포도나무)' 소속 학생들이다. J Vine은 Point 5공동체 소속 성도들의 차세대 자녀들을 위한 예배 모임이다. Point5공동체는 이민 1.5세를 위한 예배공동체다. 현재 중고등학생 약 30명이 J Vine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J Vine 차세대들이 이주민 섬김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중보기도의 마음을 담아 성경필사를 했고, 8월에는 안산M센터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함께 여름캠프를 했다.

유현웅 군(고2)은 올해 중간고사 기간과 여름방학을 뜻깊게 보냈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공부 시간을 쪼개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경필사를 했고, 여름방학에는 안산M센터 여름캠프 보조교사로 참여했다.

“저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듣고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때마침 공동체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필사를 한다기에 주저 없이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쓴 성경필사를 보고 단

한 명이라도 더 희망을 품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소망하며 정성껏 썼습니다. 안산M센터 여름캠프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우리의 섬김을 보고 교회와 크리스천에 대한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미약한 힘을 보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섬김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정말 많이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웃음).”

유현웅 학생이 교회와 크리스천이 앞장서서 이주민을 공감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와 다르다고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면 엄청난 사회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이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고,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 덕분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와 크리스천이 앞장서서 이주민을 공감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엘리(고2) 학생은 이주민들을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과 생각했다. 그런데 안산M센터 여름캠프 봉사를 하고 나서 생각이 완



J Vine 학생들과 교사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쓴 성경필사책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전히 바뀌었다.

“제 친구들도 미국에서 유색인종이라고 차별을 당하곤 했습니다. 안산M센터에서 만난 그 아이들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실제로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주민 자녀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듯이, 또래 친구들에게 그들을 직접 만나보기를 권하

고 싶습니다. 이주민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희영 교사(Point5공동체)가 한마디 거들었다.

“J Vine 차세대들이 이주민 사역에 얼마나 열심이고, 진심인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서 이주민 섬김을 위해 사용한 정말 귀한 아이들입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카카오’로 선교한다!

선교지와 지역사회 잇는 좋은 영향력 ‘카카오패밀리’



카카오로 선교하는 제주도 세화읍 카카오패밀리 김정아 대표.

제주도에 가면 꼭 한번 들러볼 만한 작은 가게가 있다.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에 자리 잡은 ‘카카오패밀리’다. 카카오패밀리는 과테말라 깊은 곳 마야인들이 먹던 카카오 생두를 수입

해서 가공 및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김정아 대표는 시부모님이 선교하고 있는 남미에 NGO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었다.

“아버님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

버지를 보면서 든든한 선교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아 대표는 자녀들에게 아무거나 먹이지 않았다. 선교지에서도 자녀들에게 어떤 간식을 줄까 고민했는데, 현지인들이 카카오로 간식을 만드는 게 눈에 띄었다.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았고, 건강에도 좋은 간식이었다.

출산을 위해 김정아 대표가 고향 제주도로 돌아왔다. 교육사업을 하면서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카카로를 이용해서 만든 초콜릿을 대접했더니 반응이 정말 좋았다. 그 일을 계기로 카카오패밀리를 시작했다.

“한국에 와서도 아이들에게 카카로를 볶아 초콜릿을 만들어 줬는데, 집에 온 손님들에게도 대접했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별거였습니다. 마침 교육사업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교육의 틀 안에서는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는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카카로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패밀리에서는 중남미의 카카로를 제주도로 가져와 로스팅하고 48시간 땀에 간

다. 그렇게 만든 카카오볼, 캐러멜, 차, 카카오닙스 등의 제품을 판매한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산지와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에 좋은 영향력이 생기고 있다.

“카카오 농부 대부분 가난합니다. 저는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 저희의 비즈니스로 인해서 좋은 영향력이 생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패밀리에서 사용하는 재료 대부분을 선교지에서 구매하고, 제주도의 자원을 발굴해서 비즈니스와 선교에 활용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저희는 선교지 농민들에게는 삶의 윤택함을 주고, 제주도 고객에게는 건강함과 즐거움을 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카카오 원산지도 그렇고, 제주도도 저희의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모든 노력이 선교의 열매로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카카오패밀리 전화번호: 064-782-1238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413-21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라떼는 말이야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위한 결혼을 꿈꾸기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여러 조건은 마음에 드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자 고민거리는 결혼인 것 같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시고, 둘은 배필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창 2장).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잘 살려 하나의 완성체(팀)를 이루도록, 자신에게 없는(부족한) 것에 매력을 느껴 결혼에 이르도록 창조하셨다. 결혼에 대한 진정한 조언자이자 상담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뿐임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인생의 선배로서 결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누고 싶다.

결혼의 전제조건으로는 신앙(믿음), 비전, 직업, 경제력, 외모, 학벌, 집안 등 많은 요소들이 있다. 나는 그 중에서 첫째가 성품(심성, 인품)이 좋아야 한다고 본다. 타고난 성품은 거의

불변(不變)이다. 종교(믿음)는 바뀌어도 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외형적 조건들이 부족해 보여도, 마음이 깨끗하고 그 속에 진실(眞實)과 성실(誠實)함이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나는 대학 입학 전까지 신앙이 없었다. 대학 생활 중에는 불교에 심취해 믿었다. 지금의 아내가 “나는 예수님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는 진실된 마음이라 느꼈다. 세월이 흘러 아내는 권사가 되고, 나는 장로로 세움 받았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사귀고자 하는 사람이 앞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모임에도 나오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다. 강요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의 길로 안내하면 좋겠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신앙까지 갖추면 최상일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일단 대화가 잘 통하고,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사람이 좋을 것 같다. 결혼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습관, 가치관을 가진 두 남녀가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다. 마치 두 사람이 한쪽 다리를 묶고 달리는 2인3각 경기 혹은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과 같다. 결혼은 서로에게 맞춰가며 조율해가야 하는 팀플레이 사역이다. 결혼 생활은 일처리의 연속이기에 두 사람이 의사소통이 잘되고, 의견일치가 되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하고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실패해도 의견일치된 사항이기에 서로에게 원망이 없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설레는 감정 없이 조건이 좋다고 결혼상대로 여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다. 만약 외적 조건은 다 좋은데, 이성으로서 설레는 마음이 안 든다면 시간을 두고 감정이 생기는지를 지켜보기를 권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외적인 조건에만 집중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은 지성과 감성, 의지를 지닌 인격체다. 자신에게 잘 맞는 인격체를 만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깊은 갈망이다. 마음이 선하고, 청결하고, 진실되며, 대화가 잘 통해서 함께 있음이 기쁘고, 만남이 기대되고 설레는 좋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아닐까 싶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청년들을 응원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위한 결혼을 꿈꾸기를 바란다.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가 나타날 때까지 말이다.



김우호 장로
(SNS청년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관점을 바꿔 생각하고, 바라보기

결혼 전에는 여행을 하거나 이동할 때 짐이 많지 않았다. 결혼 후와 비교해 보면 더욱 그런 것 같다. 배낭 하나에 캐리어 작은 것 하나 정도면 충분했다. 어떤 경우에는 캐리어도 필요 없이 배낭 하나 메고 집을 떠나기도 했었다. 국내에서 이동할 때뿐만 아니라 해외 갈 때도 짐이 매우 간소했었다. 짐이 간소해도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싱글 삶의 범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짐을 지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삶의 패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혼자 살아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짐이 생겼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그 짐이 더 많이 늘었다.

우리 부부는 결혼 직후 선교지에서 사역했다. 우리 가족은 이사와 이동을 수없이 했다. 여행 짐을 싸고 푸는 것이 월례 행사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많은 짐 속에 파묻힌 모습을 보면서 힘겨울 때가 있었다. 결혼 전에는 나만의 짐만 준비하면 됐지만, 결혼 후에는 가족의 짐을 함께 준비하고 차에 싣고 운반해야 했다. 한여름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족을 위해서 힘쓰고 헌신했다. 짐이 정말로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단순히 여행의 짐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책임져야 할 많은 일이 힘들게 느껴지고, 짐처럼 여겨졌던 것 같다. “왜 이리 집에 할 일이 많아?”, “왜 이리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라면서 투덜거렸다.

많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 전에 로맨틱한 기대를 한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깨끗이

정돈된 집안과 잘 차려진 밥상, 그리고 얌전히 집에서 자신을 환영해주는 자녀들이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라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로맨틱한 상상이 깨질 때가 훨씬 많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심각하게 어지럽혀진 집안과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식탁, 간혹 아침 설거지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기도 한다. 얌전히 있을 것을 기대했던 아이들은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고 서러운지 울고불고

“관점을 바꾸면 생각, 인식, 마음이 바뀐다.
사건이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쁨을 누릴 수도, 사막 한복판을 걸을 수도 있다.”

때를 쓰고 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당신이 종종 집에 돌아왔을 때 접하는 모습일 수 있다. 이 어수선한 모습들은 온전히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처리해야 하는 집이다.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유형과 무형의 많은 업무와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왜 이렇게 짐이 많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보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하면 그 짐이 꼭 우리를 힘들게 만하는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필자의 경우 결혼 생활에서 처리해야 할 짐,

옮겨야 할 많은 이사 물품과 이동할 때 준비해야 하는 많은 가방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관점의 변화를 가졌고, 그 관점의 변화가 심리적 짐을 풀어놓게 했다. 필자에게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 ‘결혼하고 주어지는 많은 짐이 나에게 주신 양 떼이고 소 떼이지 않을까?’, ‘수고가 따르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재산 아닐까?’

어쩌면 작은 생각의 전환이었지만 많은 심리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더는 단순한 짐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짐이 필자에게 허

피곤함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결혼 안에서 져야 할 많은 짐이 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힘만 소모되는 무용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필자는 자녀가 태어나고 선교지에서 이사하고 이동할 때마다 싱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늘어난 짐 때문에 투덜거렸다. 그러다가 관점을 바꾸면서 결혼 생활에서 져야 할 짐들과 많은 가사는 필자가 이 땅에서 양 떼와 소 떼를 돌보는 축복임을 깨달았다. 자연스럽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관점을 바꿨더니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다. 힘겨움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다. 짐덩이들이 축복일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나타났다. 일어난 사건이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

석하느냐가 중요하다.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걸어가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태양이 작열하는 사막의 한복판을 걸을 수도 있다(잠 27:23).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영화로 만나는 ‘C.S. 루이스’

‘어느 무신론자의 영적 순례기: C.S. 루이스 이야기’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한때 기독교 변증이 기독교에 대한 회의주의, 특히 젊은 세대들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나에게 되돌아온 질문이었다. 이 질문을 하셨던 목사님은 기독교 세계관과 프랜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미국 장로교회 목사이자 복음주의 운동가(1912~1984년) 전문가였다. 이 질문은 한동안 내 뇌리를 맴돌았고, 여전히 답을 찾아 탐색 중이다. 어렵פות 찾은 나만의 결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은 탁월한 이론과 완벽한 논리라기보다 누군가가 실제로 경험한 진심 어린 삶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십자가에 오르신 것 아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고차원적 교리나 논리적으로 탄탄한 논증을 바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실제적 삶 아닐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이율배반적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삶의 행태 때문에 마음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삶에 관한 진솔한 인생사는 그 사람의 탁월한 주장과 논증까지 뛰어넘는 매력이다.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Surprised by Joy)〉은 〈순전한 기독교〉, 〈나

니아 연대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C.S. 루이스와 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이만한 책이 없다. 지극히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란 한 사람이 어떻게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는지, 그랬던 그가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자신을 ‘가장 반항적인 개종자’라 칭하며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의 나팔수가 되었는지 등 C.S. 루이스의 드라마틱한 인생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다양한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도 엿볼 수 있는 자서전적 작품이기도 하다.
C.S. 루이스를 생각할 때, 그의 작품들은 심오한 진리를 다루고 냉철한 이성적 주장들이 가득하면서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몰입감을 선사하기에 우리와는 동떨어진, 고차원적인 삶을 살았던 ‘넙사벽’(‘넙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의 줄임말.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격차를 줄이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상대를 가리키는 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고백하는 C.S. 루이스의 삶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암으로 여이고, 아버지와 좋지 않은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전쟁의 공포를 겪으며 친구를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절망을 경험한 평범한 인생이었다. 이 내용을 알고 그의 작품들을 접한다면 영졌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면서 문장들이 나의 삶을

터치하듯 작가와의 거리가 좁혀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C.S. 루이스의 실제적 삶의 이야기가 주는 힘을 고스란히 간직한 〈예기치 못한 기쁨〉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지난 9월 29일 저녁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린 ‘C.S. 루이스의 밤’에서 소개되었다. 그 영화는 ‘어느 무신론자의 영적 순례기: C.S. 루이스 이야기’다. 이 영화 원제목 ‘The Most Reluctant Convert’를 번역하면 ‘가장 다루기 힘든, 반항적인 개종자’ 정도가 되겠다. C.S. 루이스와 관련된 영화는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아니면 앤서니 홉킨스 주연의 ‘쉐도우랜드(Shadowlands, 1993년)’가 끝이 아니었다. 이렇게 특별한 영화를 교회에서 접할 수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꿈만 같았다. 이 영화는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연극을 다시 영화로 제작했다고 한다. 30년 전 영화 ‘쉐도우랜드’의 연출을 맡았던 영국의 기독교 영화 제작자 노만 스톤(Norman Stone)이 다시 메가폰을 잡았다는 점과 C.S. 루이스의 생가를 포함해서 그가 실제로 생활했던 옥스퍼드 지역에서 대부분 촬영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노년의 모습을 한 주인공 C.S. 루이스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된다. 계속되는 독백에 ‘지루하면 어찌지?’라는 걱정이 모락모락 피어날 즈음 유년 시절과 참전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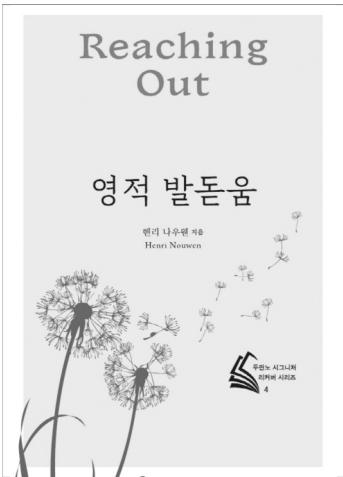
의 다채로운 에피소드들이 생생하게 재현된다. 백미는 내면의 고뇌가 극에 달했던 시절의 재현 장면인데, 노년의 C.S. 루이스가 함께 등장해 그 시절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며 당시의 심정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연출해서 독백이라는 한계를 가볍게 극복했다. 감독의 탁월함을 엿볼 수 있는 연출 포인트였다. 원작을 고스란히 담은 대사들과 눈 앞에 펼쳐지는 시각적 이미지 앞에서 어느새 나도 C.S. 루이스가 되었고, 그의 인생 여정을 동행하는 여행객처럼 몰입했다.
이 영화는 ‘제19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개막작이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측은 “C.S. 루이스 특유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문장이 스크린에서 펼쳐졌기에 그를 사랑해온 독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신앙을 지성적으로 차분히 소개받고 싶은 이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록 OTT 플랫폼 ‘풍당’에서 다큐멘터리 ‘판타지 메이커스(Fantasy Makers)’와 기독교 고전과 작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잇쉬의 서재’의 ‘C.S. 루이스’편을 함께 본다면 C.S. 루이스와 그의 작품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임영광 목사
(CGNTV 풍당제작
본부장)

두란노 신간

영혼의 성숙을 위한 영적 이정표!



〈영적 발돋움〉
헨리 나우웬 저 | 두란노 | 14,000원

시대를 넘어 가장 사랑받는 기독교 명작 고전을 전면 개정해서 만나볼 수 있는 ‘두란노 시그니처 리커버 시리즈’에서 새로운 책을 출간했다.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웬이 남긴 시대의 걸작 〈영적 발돋움〉이다.
헨리 나우웬의 〈영적 발돋움〉은 일상의 안식과 영혼의 성숙을 위한 영적 이정표다. 성령 안에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다. 헨리 나우웬의 삶이 녹아 있고, 본인도 고민했던 삶에 문제를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독자들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책이다.
“영적인 삶이란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로, 우리의 동료 인간들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돋움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영적 발돋움〉에서 영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자아, 이웃,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자아를 향한 발돋움은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타인을 향한 발돋움은 ‘적대감에서 따뜻한 환대로’,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은 ‘환상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영적 여정의 길을 제시한다. 영적 여정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성도, 영혼의 성숙을 원하는 성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헨리 나우웬의 글을 읽는 동안 영적인 삶에 대한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불만한 공연

‘THE DIVAS’



콘서트 ‘THE DIVAS’

1세대 찬양사역자 최미, 최명자, 손영진, 송정미가 후배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콘서트를 연다. 후배 여성 찬양사역자를 위한 콘서트 ‘THE DIVAS’가 10월 15일(토) 오후 7시 ‘신촌 히브루스(서강로 144, 10층)’에서 막 오른다. 콘서트 수익금 전액을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K-CCM)’에 후원한다.

후배 여성 찬양사역자를 위한 콘서트 ‘THE DIVAS’에서는 선배 여성 찬양사역자들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난 예수가 좋だ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사랑의 종소리’, ‘오직 주만이’ 등의 찬양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들의 살아있는 간증도 들을 수 있다.

최미는 1978년부터 찬양사역자로 활동했다. 지금은 여성들을 위한 사역 ‘회복21’의 대표를 맡고 있고, 라디오 joy ‘최미의 회복’을 진행하고 있다. 최명자는 1979년부터 찬양사역자로 활동했다. 지금은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 홍보대사를 겸임하고 있다. 송영진은 월드디즈니 만화영화 ‘인어공주’의 주인공 역할을 맡았었고, 해외를 순방하며 수천 회 콘서트를 열었다. 송정미는 미국 카네기 홀에서 단독공연을 하는 등 국내외에서 영향력 있는 가수다.

후배 여성 찬양사역자를 위한 콘서트 ‘THE DIVAS’ 티켓은 9월 30일 12시 인터파크에서 판매한다. 가격은 7만7천 원이다.

문의: 02-3473-3960



지난해 열린 청춘클래스에서 청년들이 이정선 사모의 강의를 듣고 있다.

크리스천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10월 15일 '2022 크리스천 결혼문화세미나'
11월 12일 대청 연애·결혼 코칭 세미나 '청춘클래스'

크리스천 청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을 위하여 온누리교회 크리스천 결혼문화팀과 대학청년부, 사단법인 행가래가 아주 뜻깊은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15일(토)에는 '2022 크리스천 결혼문화세미나'가, 11월 12일(토)과 19일(토)에는 대청 연애·결혼 코칭 세미나 '청춘클래스'가 열린다.

'2022 크리스천 결혼문화세미나'는 10월 15일(토)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지하 2층)에서

진행된다. 결혼 적령기 청년 및 부모가 그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10월 7일(금)까지 다음카페 '5060부모교실' (cafe.daum.net/5060parent)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점심 제공)이다. 공광승 목사, 이명주 사모('싱글매칭학교' 운영), 김은영 교수(마음자키미 연구소 소장), 감미향 목사(가정사역 담당)가 강의한다.

대청 연애·결혼 코칭 세미나 '청춘클래스'는 11월 12일(토)과 11월 19일(토)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10월 11일(화)까지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또는 대학청년부 온라인 주보에 첨부된 네이버 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식식 제공)이다.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부장), 책 읽는 사자(유튜버) '이정선 사모(이재훈 담임목사 사모) 강의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S. 루이스의 밤' 개최

연극, 영화, 토크쇼로 만나는 C.S. 루이스

20세기 복음주의의 거장, 기독교 변증의 대가 C.S. 루이스를 연극과 영화, 토크쇼로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C.S. 루이스의 밤' 행사가 지난 9월 29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C.S. 루이스의 밤 행사는 제19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특별행사다.

C.S. 루이스의 밤은 1부 연극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부 토크쇼 '루이스를 말하다', 3부 영화 '어느 무신론자의 영적 순례기: C.S. 루이

스 이야기' 순으로 진행됐다. 연극에서는 황만익, 이은주, 김동민이 열연했고, 토크쇼에는 추상미(배우 겸 감독), 김진혁 교수(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 이재훈 담임목사가 패널로 출연했다. 박진국 자매(여호수아청년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전할 수 있는 영화 같다"고 말했고, 김선영 성도(특별한초대)는 "C.S. 루이스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감상평을 했다. / 정현주 기자

아주 특별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10월 한 달,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 모집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를 모집한다. 열린새신자예배는 새신자를 위한 예배이자 초대자를 기쁘게 하는 예배다. 10월 한 달 동안 모집한다.

열린새신자예배를 함께 섬길 성도들은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에서 나눠주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 지원캠퍼스(서빙고, 양재), 선호분야' 등을

기입해야 한다.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 모집 분야는 '중보기도, 안내 및 웰컴, 무대 지원(AD, FD, 무대세팅), 디자인, 영상 제작 및 편집, 예배 사역(보컬, 와이어), 온라인 사역(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다. 열린새신자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7시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 홍하영 기자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이 10월 15일(토)부터 12월 3일(토)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온라인(Zoom)과 현장 강의로 열린다.

성경적 가정으로 리모델링을 원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2학점이 부여된다. 회비는 가정당 5만 원. 문의: 010-9041-5538

기독교 성가치관 학교 (기본과정)

11월 1일~12월 6일까지 온라인

크리스천 양육자와 다음세대의 올바른 기독교 성가치관을 세워주는 '기독교 성가치관 학교(기본과정)' 세미나가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주 동안 온라인으로 열린다.

디지털 세대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교육하기 원하는 부모, 교사,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10월 25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65

영종온누리교회 개척예배

10월 2일부터 매주 주일 오전 9시, 11시

영종온누리교회 개척예배가 10월 2일(주일)부터 올해 말까지 임시예배당(인천 중구 중산동 1883-9 하늘프라자 403호)에서 매주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드린다.

영종온누리교회는 2019년 전영한 대표(하남주식회사)가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09-3번지에 2028.8㎡ 규모 땅을 교회로 건축해달라며 기

증해 지난해 3월 착공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다.

영종온누리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예배자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영상과 음향기기를 다룰 줄 아는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종온누리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제치윤 목사 010-4046-7601)로 문의하면 된다.

젊은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10월 15일부터 매주 토 오후 3시

젊은부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진행된다. 10월 22일에 만 시온홀에서 과정이 진행된다.

젊은부부학교는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경험하게 하

고, 성경적인 바른 가정을 세워가도록 돕는 가정회복훈련 프로그램이다. 수강신청은 10월 8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가정당 18만 원. 10월 8일까지 입금하면 회비를 3만 원을 할인해준다. 문의: 010-5368-4317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강생 모집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양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4주차에는 오후 2시부

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0월 9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가정당 20만 원. 문의: 010-9242-9350(서빙고) 010-4429-5025(양재)

Love Sonata - 미야자키 기·도·제·목

- 10월 3일(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리브소나타가 되게 하소서
- 10월 4일(화) 미야자키 교회와 지도자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 10월 5일(수) 이재훈 목사, 강사진들에게 기쁨 부으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 10월 6일(목) 참석하는 모든 영혼이 마음을 열어 풍성한 은혜가 맺히도록
- 10월 7일(금) 교회세미나, 포럼, 가스펠나이트로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 10월 8일(토) 봉사자, 스태프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기를
- 10월 9일(주일) 날씨, 시설, 장비, 건강, 음식 등 모든 상황이 주님 손아래 있기를

통일선교학교 수강생 모집

10월 29일부터 매주 토 오후 7시 30분 온라인

통일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로 하면 된다. 문자메시지로 등록할 때는 '이름, 소속, 출생연도'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회비는 교재비 포함 2

만원이다. 선착순 청년 20명은 회비가 면제된다. 통일선교학교는 통일의 성경적 기초, 북한과 탈북민 이해, 통일선교 사역 소개 등의 주제 강의를 통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문의: 010-4337-5927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부모반 10월 29일, 청소년반 11월 12일 개강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모반은 10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 청소년반은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도곡교육관 충성홀에서 진행된다. 청소년반에

서는 내년 1월 5일부터 11일까지 해외 아웃리치를 갈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10월 28일(1차)까지 아이스쿨 및 회복사역 홈페이지(recovery.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부모반 3만 원, 청소년반 9만 원(2인 15만 원)이다. 문의: 010-4548-1522

■ 8기 갈렙선교학교 수료 간증



/ 김현우 성도(분당B공동체)

나에게 주신 헤브론!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수 14:12).

젊은 시절부터 해외 근무가 잦았고, 타국 오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자주 접했다. 자연스럽게 선교에 관심을 가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선교가 나의 도전이자 비전이 되었다. 언젠가 은퇴하면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을 소망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나는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해외에서 현업으로 일하고 있다.

쉽 없이 바쁘게 살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선교가 하나의 꿈으로 끝나가는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외침을 한 나이가 85세였다. 이 부분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용기와 희망이 생겼다. 비록 나이가 들어 짧은 시간이 될지라도 나이를 탓하며 주저앉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할 기회가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노후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일이나 혹은 다른 일이라도 분명히 내가 필요한 주님의 일이 있을 거라 믿는다. 이 소망을 가지면서 하루하루가 기쁘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건강과 시간 관

리를 잘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새 힘을 얻고 있다.

8기 갈렙선교학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다 준 기회였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이 운영되어서 수료할 수 있었다. 아내의 확신과 결단, 격려로 큰 도움이 되었다. 8기 갈렙선교학교를 통해서 그동안 막연하게 소망하던 선교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나의 현재 위치에서도 할 수 있는 선교적인 헌신이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온 세상에 복 주시는 것이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이 바로 선교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선교사적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행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보냄 받은 곳이 어디일까? 선교사 및 국내 이주민에 대한 돌봄과 재능기부임을 깨닫는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 주신 헤브론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선교적인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다하고 싶다. 많은 성도들이 갈렙선교학교에 참가해서 이 시대 갈렙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한다.

■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박미연 성도(강촌공동체)

“젊은부부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를 다녀온 나에게 학교가 어땠는지 물어보면, 학교는 참 풍요로웠다. 학비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과분했다. 젊은부부학교는 학생의 필요를 살뜰히 살피고, 수업을 물심양면으로 준비해주었다. 졸업하기가 아쉬울 정도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셨냐고 물어보면, 젊은부부학교의 선생님들은 훌륭하고 겸손하신 분들이었다. 그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고 감사했다. 좋은 강의로 섬겨주신 강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해주신 스태프들이 있어 젊은부부학교가 더욱 즐거웠다. 매주 배달로 섬겨주신 분께도 감사드린다. 우리가 늘 외출 중이어서 얼굴 한 번 뵈지 못해 아쉽고 죄송하다. 기도해주시고, 안부 전화해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수업이 어땠는지 물어보면, 젊은부부학교 수업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잘 담겼다. 젊은부부학교 수업을 듣기 전에 내 삶은 전부터 겪어왔던 문제와 결혼 직후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상황을 감당하느라 엉망진창이었다.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문제

가 생기나 싶기도 했다. 그런데 젊은부부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내 삶에서 벌어진 일들은 모두 정상범위 안이었고, 꼭 필요했던 일들이며, 우리 부부의 행복을 준비하는 필수적인 공통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수업을 통해서 “괜찮아 정상이야 그래야만 했어”라는 위로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다.

젊은부부학교 수업을 통해서 한 주에 한 가지씩 크게 네 가지를 배웠다. 첫째,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이 나를 훨씬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부부연합이 그 무엇보다 우선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셋째, 연합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넷째, 앞으로 내 삶에 주님의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숙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보이는 숙제는 모두 다 해서 제출했다. 안 보이는 숙제는 젊은부부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묻어나도록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다.

“젊은부부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임미정 성도(성북공동체), 김여준 학생(가정사역공동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2000년, 마흔을 앞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감사와 기쁨이 컸지만,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모르고 지냈던 후회와 아쉬움도 많았다. 그런 나의 1순위 기도제목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었다. 우상을 숭배하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가정에서 유일하게 힘이 되어준 어린 딸과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고, 딸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었다. 딸이 자라서 결혼하고 첫 번째 선물 여준이의 임신을 알고부터 매일 딸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기다렸다. 딸이 나에게 여준이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했다. 여준이가 초등 1학년이라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다.

마냥 어리게만 생각했던 여준이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문답을 적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감동이었다. 여준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했다고 했다. 하나님이 여준이의 작고 어린 마음을 만지시고, 그 안에 소망을 넣어주시고, 소망의 삶으로 이끄

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전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여준이의 마음에 싹 트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보았다.

과정에 늘 감동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용이 너무 길다고 누워서 나눔을 하겠다고 고집부릴 때도 있었고, 말씀 암송이 힘들다고 투정도 했다. 그래도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과정 자체를 싫어하지 않은 것이 감사했다. 나는 가끔 여준이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짧고 어눌한 말투지만, 그 기도에 진심이 담겨있어 감사하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에서 여준이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일대일이 싫을 때도 있었지만 고마운 것이 더 많아요. 제가 커서 아빠가 되면 저도 아들과 딸하고 일대일제자양육 할 거예요. 일대일을 같이 하신 할머니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 파워임팩트 수료 간증



/ 강준 성도(일산공동체)

천국 맛보게 하는 훈련 그리고 은혜

세달 전 둘째 딸 윤이가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고 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동안 애쓴 우리 부부의 양육 방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 무렵 아내의 권유로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에 참여했다. 부모 말에 따라주고 이 과정을 끝까지 완주한 우리 윤이에게 고맙다는 말과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윤이에게 이번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무엇인지 물어봤다. 아웃리치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뻐했다고 했다.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는 예수님, 십자가도 무슬림 아이들에게는 쉽게 전해줄 수 없는 것을 참 안타까워했다.

파워임팩트를 하며 우리는 윤이에게 또 하나님의 미션을 주었다. 경주 1박 2일 여행을 혼자 하고 오는 것이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혼자 무언가 도전해 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과를 느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차를 태워 보내는데 ‘아! 아이를 떠나보내야겠구나! 하나님의 아

이이고 나는 양육을 위탁받은 청지기인데, 내 소유처럼 여겼구나! 다시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겠구나!’ 생각하며 눈물지었다.

윤이는 생각보다 여행을 안전하게 잘 다녀왔다. 스스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완주한 것에 뿌듯해하는 것 같았다.

“윤아! 무섭고 두렵지 않았어?”, “응! 나는 길을 잃거나 무서운 일이 생기면 아빠가 당장 달려올 것을 알았어!”, “아빠는 멀리 서울에 있는데?”, “그래도 그럴 것 같았어”.

멀리 있어도 나를 위해 당장 달려오리라는 부모에 대한 믿음! 그 말에서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당장 달려오시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하나님은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 주고 싶어서 애가 타시는 것 같다.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신 것 같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의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훈련과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리라 믿는다.

장로칼럼

주님 앞에서의 태도와 방향성

홍범식 장로
(강서공동체)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역할이 무엇일까? 선교사들에게는 본인을 파송한 교회와 선교단체가 있다.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선교단체에 사람을 보내고 재정을 후원해준다. 그리고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선교단체가 주관

한다. 온누리교회는 창립 당시부터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았다. 그런데 독자적인 선교단체가 없다보니 사역에 제약이 많았다. 온누리교회의 선교 방향과 아이디어를 그대로 실행하는 선교단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의 선교 방향에 따른 선교를 지속하기 위해 창립한 것이 두란노해외선교회(TIM)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1988년 7월 중보 기도모임에서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이상자 권사님께서 장소를 제공하면서 시작된 ‘한남동기도모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밑 걸음에는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다. 최선수 장로님은 한창 치과의사로 활동할 나이에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다. 이어서 온누리교회 1호 순교자이신 박승철 장로님이 대련으로 가셨다. 박승철 장로님은 단둥에서 탈북민을 섬기다 한겨울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돼 소천하셨다. 중국 천진으로 선교 가신 이병현 장로님은 지금 97세다. 이외에도 김광선 장로님, 함선호 장로님, 박석봉 장로님 등 많은 장로님이 선교지로 향하셨다. 국내에서도 손정래 장로님, 홍덕표 장로님, 남정진 장로님, 김기호 장로님, 오명 장로님, 김기섭 장로님 등 많은 분의 헌신이 있었다. 리더십들의 헌신이었기에 평신도도 선교에 한 몫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진짜 뿌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리더십들의 헌신만큼이나 많은 성도가 이름도, 빛도 없이 세계선교의 초석이 되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교회와 함께 사역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은 평신도 선교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신학을 공부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아야 선교사로 파송 받을 수 있는 선교 단체들도 있는데, 두란노해외선교회(TIM) 파송 선교사 70% 정도가 평신도다. 가장 큰 특징은 남들이 가지 않는 선교지를 간다는 점이다. 남들이 밭상을 차려 놓은 선교지에 가서 순가락만 올리지는 게 아니라 최전방으로 간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했다. 온누리교회는 16개 미전도종족을 입양해서 사역해왔다. 미얀마의 인파족과 몽골의 브리야트족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아직도 4개 미전도종족에 선교사가 없고, 도시가 선교의 최전방으로 대두되는 것을 보면서 온누리교회와 두란노선교회(TIM)가 더욱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돌이켜보면 미숙했던 점도 많았다. 초기에는 그 땅에서 기도만 해도 된다면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사역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웠고, 옥석도 생겼다. 이제는 분명한 선교 목표를 가지고 팀(Team)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난민, 이주민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을 정말 발 빠르게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제는 선교사와 후원자가 동역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후원자와 공동체가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을 하고, 사역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보고가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 앞에서의 태도와 방향성이 중요하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무너진다.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주님 앞에서 미래의 30년도 선교를 잘 이어나가기를 기도한다.

권사칼럼

사랑으로 기도하는 ‘무릎기도자’

오인정 권사
(무릎선교학교 조장)

나는 스물 셋에 결혼해서 14년 동안 불임으로 힘들게 살았다. 당시 세상 모임과 친구들을 모두 끊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라는 말씀만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다.

기도한 지 14년 쯤 되던 해였다. 결혼한 지 14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 뒤로 나는 세상에 사는지 하늘에 사는지 모를 정도로 꿈같은 날들을 보냈다. 자녀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순종도 잘하고, 신앙생활과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들을 주셔서 더욱 감사한 삶을 살았다. 아들에게 꼭 빠져 살았다.

결혼 전 부모에게, 결혼 후 남편에게 만족스럽게 채우지 못한 사랑을 아들에게 채우려 했던 것 같다. 어느 덧 아들은 장성해 유학 중에 있다. 얼마 전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사귀는 여자친구와 2년 후에 결혼하겠다고 했다. 그 전화를 끊고 마음이 불편했다. 며칠 뒤 아들과 다시 통화하는 데 갑자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왔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사람도 끼는 것이 싫다.”

그 순간 무릎선교기도학교 단체대화방에서 나누었던 기도제목이 떠올랐다. 우상 숭배하는 중동의 여러 나라의 무슬림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도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제껏 아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음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깨닫기는 했지만, 인정하지 못했다.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 선교

사님의 간증과 주위 사람들에게 “아들이 나의 우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너의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나도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는 게 싫다.”

나와 단둘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하나님보다 아들에게 집중하고 사랑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주님보다 사랑하면 안되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집중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성사역을 통해서 여러 선교사님 강의와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큰 은혜였다. 그 중에서 부르키나파소의 서혜경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 옥수수죽이 주식이고, 밥은 주 1회도 못 먹는다는 말씀을 듣고 맛있는 것만 찾아 먹으려 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함이 창피했다.

기도회 기간 중에 체중이 급속히 빠지고 식사를 못해서 힘들어 할 때 시편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주시고 기도해주신 이진이 목사님과 나를 무릎선교기도학교로 이끌어 주신 용명순 팀장님께 감사하다. 매일 함께 기도하는 중동 4조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와 중동 17개국을 위해 한 나라씩 돌아가며 기도문을 올려주시고 기도해주신 조원들의 열정에도 감사하다.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늘 부족해서 주님께 사랑을 흡족하게 드리지 못해도 여전히 받아주시고, 괜찮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한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품고 살고자 한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더욱 사랑으로 기도하는 무릎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강은수 목사
(동대문중앙공동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살면서 선행을 베풀지 않은 인색한 노파가 지옥에 갔다. 지옥 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데 수호천사가 가엾게 여기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다.

“생전에 저 노파가 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으니 선처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노파가 파 한 뿌리를 붙잡고 천국으로 오는 것을 허락한다.

“평생 인색했지만 그래도 파 한 뿌리의 작은 선행이라도 했으니 그것을 기억한다.”

그 노파가 신이 나서 파 한 뿌리를 붙잡고 지옥 불을 빠져 나오려는데,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살려 달라”면서 그 파 뿌리에 우르르 아귀

처럼 달라붙었다. 노파가 달라붙는 손길을 밀쳐내며 소리쳤다. “이건 내 파 뿌리야!” 그 순간, 후드득하고 파 뿌리가 끊어져버렸다. 그리고 모두 지옥 불에 떨어졌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불독 파 뿌리 하나씩은 있는 것 같다. 싫어도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건네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 25:40b).

인간은 극한에 몰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존재다. 보통 때는 감추고 살아간다. 그래서 자신도 다른 사람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내리치면 알게 된다.

파 한 뿌리 인생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마 7:24~27).

코로나19가 덮쳐봐야 아는 것이다. 홍수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인생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인지. 마지막 순간에서 보면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반추하며 돌아보고 결국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

아들이 8월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입소 준비물을 챙기는데 사회에서 입었던 옷과 신발, 용품들은 군대에서 필요가 없었다. 세상에서 좋은 것들도 군대 갈 때 모두 놓고 가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곧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말세(末世)를 살아갈 지혜를 말씀해 주셨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속박된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당신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선수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한 말이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 이웃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파 한 뿌리만 붙들고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 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예수님의 감사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슬픔과 절망 한복판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소생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에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과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신뢰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에 슬픔과 절망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절망 가운데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시간은 기쁨과 승리만이 아닙니다. 슬픔과 절망의 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여러 기관에서 섬기는 직책을 맡았는데, 과거 잘못된 일들을 해오던 기관에도 들어가서 그곳을 다시 바꾸고, 회복시키고, 정의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분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생애 처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떠올린 것이 ‘이때가 감사헌금을 내야 할 때구나’였습니다. 그리고 생애 큰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생애 첫 고소 기념 감사였습니다. 마음에 가장 충격이 되었던 그때 감사헌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일은 잘 처리를 했습니다. 답변할 필요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뜻하지 않게 겪는 억울한 일, 슬픈 일,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는 바로 그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절망하는 이들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сар가 나올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 “하나님 기적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나온 다음 “나사로가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적과

성공이 일어난 이후에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 이전에, 회복 이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먼저하는 감사요, 미리하는 감사입니다. 상황이 개선되고, 회복되고, 해결된 이후의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감사

셋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22-24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만찬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만찬이기에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 몸이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빵과 잔을 나누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 나사로가 소생케 되기 이전에, 떡과 잔을 나누는 가운데 감사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순종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죽음 앞에서 드러진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끝이 희생이고 죽음이라면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았을 때 드리는 감사 아닙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을 죽음의 제물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절정입니다. 드리며, 순종함으로, 죽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올리브산에 오르시면서 찬송을 부르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26절).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찬송을 부르셨다는 딱 한 구절입니다. 물론 이 때만 찬송을 부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다는 기록을 왜 했을까요?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정, 올리브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유다의 배신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끌려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바로 그 여정의 출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정에 대한 감사, 자신의 순종의 죽음을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나 믿음의 감사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2010년 11월 21일 하용조 목사님의 추수감사주일 설교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입니다. 그때는 병원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투석으로 인해 혈관이 너무 약해졌기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통고가 주어진 직후입니다. 그때 어떻게 설교하셨습니까.

“저는 간암 수술을 일곱 번 했고, 투석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가끔 강단에 올라올 때 비틀거리며 올라옵니다. 저는 그 래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은혜로 바꿔 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용조 목사님의 고백적 설교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일을 맞아 예수님의 감사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풍족함이 아니라 결핍함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순종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교회와 미전도종족 선교 1. 미얀마 인레(인파) 지역 선교 역사

미얀마의 교회도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시간이 한참 흐른 요즘에야 비로소 복음의 씨앗이 나무가 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미얀마 인레교회는 2009년 9월 예배공동체로 태동했다. 2012년 3월 24일 따웅지 침례교단에서 인레교회를 허락했다. 한국, 태국, 호주, 브라질, 스위스, 핀란드, 필리핀, 미국, 프랑스, 스웨덴, 중국 등지 성도들의 기도가 그 원동력이었다.

나는 미얀마 인레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건강이 더 좋아졌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 불교도들의 반대로 어려움도 있었다.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심할수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따라 일이 생긴다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명을 만들어 간다. 하나님이 자녀들 옆에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1995년 한국에 가려고 초청장을 받았는데, 비행기값과 재정이 없었다. 한국에 도착해도 입국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매일 밤 가족들이 모여 회의하고 기도했다. 우리는 단한 문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열릴 것을 믿기 때문이었다. 한국 가기 일주일 전 먼 친척이 돈을 빌려줘서 비행기 표를 사고, 비자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미얀마 사람들과 예배를 드렸다. 온누리교회에서 모임을 시작했고, 영국, 일본, 네팔, 필리핀 등지에서 교수들이 왔다. 나는 교회에서 외국인 제자훈련코스, 성경교육 확장코스를 2년 동안 배웠다. 그때 몽골인 2명, 일본인 1명, 미얀마인 2명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마웅,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다. 미얀마로 돌아가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라.”

나는 한국에서 3~4년 돈을 더 벌고 싶었다. 그

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렸다. 그리고 미얀마 인레 지역에 성도가 없고, ‘인파족’이라는 미전도종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결국, 나는 1998년 4월 9일 미얀마로 귀국했다.

나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직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인파족이었고, 인레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사람 덕분에 인레 지역에 있는 동역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동역자들에게 따르면 미얀마 인레 지역에도 사역자가 있었는데 선교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했다고 한다. 외지 사람들은 2~3달밖에 살 수 없었고, 여러 문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에 미얀마 인레 지역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민의 집에서 머물 수 있다고도 했다. 정말 반가운 일이었다. 또 어느 날은 불교도가 자신의 변화된 삶이 하

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라고 간증했다.

미얀마 인레 지역의 선교 역사는 194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외국인 선교사가 1명 있었는데 수영을 잘했다고 한다. 어느 날 그 외국인 선교사가 물에 빠진 왕의 아들을 구해주면서 인레 지역에 사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전쟁으로 선교사가 고국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 목사님이 오셨는데, 1년 살다가 떠났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목사님 10명을 파송했는데 3~4년 후에 다시 떠났다고 한다. 마을에 10명 정도 성도가 있었는데, 불교도의 반대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의 힘으로 견뎌냈다고 한다. 1976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인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아직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해야 한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아마웅 목사(미얀마 인레교회)

서빙고

0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이강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일 첫주 군포 셀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페인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Zoom / 꿈방

11:00 705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예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매일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제83회 성령수련회

일시: 10월 1일 9시~17시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접수: 아이스쿨

문의: 황보은선 권사(010-7120-5221)

*서빙고 버스 출발(오전 7시 30분 신동아

쇼핑센터 앞)양재 경유)

제14회 온누리 캠퍼스 한마음 축구대

회 참가선수 및 각 캠퍼스회원모집

대상: 온누리교회 성도 및 배우자

문의: 서빙고(오명석 총무 010-6470-7131), 양재(이범진 총무 010-6891-6665),

수원(박민규 총무 010-3753-4546), 남양주

(권오빈 팀장 010-5535-0119), 대전(김성

동 팀장 010-5454-9338), 부천(황근배 총무

010-4727-5258)

CMN 서울역노숙인 진료팀 모집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참좋은친구

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지부 164기

자원자 모집

일정: 10월 15일~11월 19일(매주 토 오후 2시

~6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회비: 12만 원

접수: 아이스쿨

홈페이지 : www.father.or.kr

문의: 02-2182-9150, 010-3135-2865

제525기 업그레이드 부부학교 지원

자 가정 모집

일시: 10월 15일~ 29일(매주 토 오후 2시~9

시, 10/22~23일은 1박 2일)

장소: 진새골 사랑의집(경기도 광주)

대상: 더 풍성한 행복을 원하는 부부

문의: 02-444-2212, 031-767-2776

양재

0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은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일시: 10월 12일(화)~18일(월)

장소: 이스라엘 현지

대상: 이스라엘 현지를 답사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성도

문의: 010-4902-1022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

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케냐 마사이부족 엔게레수나 어린

이 도서관 후원

모집: 5~12세 읽을 수 있는 영어책

접수: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임정윤 간사(02-570-7469)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 천

0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

책이 읽고 싶어지는 독서 공간

잇'쉬의 서재



이 시대 반드시 만나야 할 기독교 작가 5인의 삶으로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

기독교 지성을 더 깊이 채울 5인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 디트리히 본회퍼,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틀, 유진 피터슨

진행 배우 박시은, 이석준, 가수 홍대광 **출연** 배우 백성현, 오종혁, 심지호, 김지현, 가수 배다해

매주 금요일
‘풍당’ 업로드

▶ ‘풍당’ 시청 안내

풍당 앱 fondant ▶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풍당 웹 바로보기 ▶ <https://www.fondant.kr/>

